

# 서울 봉은사 신임 주지 원명 스님

자승 스님, 7일 임명장 수여...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 보문사 주지 정문 스님



원명 스님 지현 스님 정문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영사찰 강남 봉은사 재산관리인에 현 조계사 재산관리인 원명 스님을 임명했다. 또 조계사 재산관리인에는 현 총무원 총무부장 지현 스님을 겸직하도록 했다.

자승 스님은 10월 7일 오전 총무원회의를 열어 임기만료 예정인 봉은사 재산관리인 원명 스님의 후임에 조계사 재산관리인 원명 스님을 임명했다. 또 조계사 재산관리인에는 현 총무부장 지현 스님이 겸직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지현 스님은 총본산 성격화 불사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조계사를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원명 스님에게도 "신도들과 화합해 봉은사 숙원불사를 잘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승 스님은 10월 7일 보문사 재산관리인에 정문 스님을 임명했다. 자승 스님은 "중앙종회 다선의원이고 보경사 등 사찰 소임과 종단 사회부장 업무 경험으로 보문사 소임을 보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목탁소리가 끊이지 않게 정진해 기도도량으로서 보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lp79@yunbul.com

# 전남불교, 지역포교 위해 머리를 맞대다

조계종 포교원 7일 광주불교회관서 총책 연찬회

## 단일화된 지역 포교 창구 필요 광주전남포교협의회 구성 제안

광주·전남불교의 중흥을 위한 대화마당이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0월 7일 오후 2시 광주불교회관에서 '광주·전남 포교의 중심, 교구본사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 64차 포교총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향후 포교과제를 같이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협의체 가칭 '광주전남포교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하며,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 큰 의미를 가졌다.

광주전남지역 교구본사(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연찬회는 고명석 포교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호남 종교지형의 변화와 광주·전남 포교 활성화 위한 제안' 주제의 모두발제와 원명 스님(대흥사 교무국장)의 '광주·전남 지역현황 및 포교활성화를 위한 교구본사의 역할', 양행선 사무국장(광주불교연합회)의 '광주·전남 포교과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이어 법일 스님(완도신흥사 주지), 이재연(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사무국장), 조영훈(중심사 사무장)씨가 나서 지역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모두발제문을 발표한 고명석 연구원은 "광주전남지역은 개방성과 진취성이 강한 지역이며 문화예술을 비롯한 인문학적 토양이 기름진 곳으로, 호남지역의 불교가 다시 꽃피우기 위해서는 낡은 옷을 과감히 벗고 새롭게 변모한 신(新) 불교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원명 스님은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단일화 포교 창구가 필요하며, 교구본사 중심으로 각 지역 주지연합회를 설치해 포교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구체적 방안으로 포교원의 발빠른 대응과 젊은 층의 포교, 지역 인프라 활용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양행선 사무국장(본지 광주전남지사)은 구체적 실행과제로 △인구가 많은 곳에 사찰 이전 및 신축 △우수한 총무원 채용 △1개의 사찰에 1개의 비영리단체 설립 △지역 출가자와 활동가의 교류활동 증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종단에서는 신도 수행프로그램의 개발, 교구본사는 도심위주의 포교사업 진행과 포교사찰에 대한 인센티브, 사찰에서는 우수총무원 채용 및 단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연찬회는 최근 들어 광주전남지역 구체적 불교현안에 논의하는 첫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yunbul.com  
(발제 요약 전문 A31면)

# 南北불교, 합동법회 열고 평화 모색

조계종·천태종, 신계사·영통사 복원 기념 법회 잇달아

남한의 조계종과 천태종이 북한 불교계와 함께 공동 법회를 열고 평화 통일 모색한다.

남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은 10월 2일 개성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남북한 불교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지난 8.25 합의에 대해 환영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형성을 위해 남북불교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을 맞아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오는 10월 15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에는 남북불교도들의 연대와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을 비롯한 6명이 참석했으며,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차급 실무회담과 3명이 참석했다.

## 조불련과 합의...北 현지사 법회

## 조계종, 신계사 복원 8주년 맞아

## 오는 10월 15일 금강산서 법회

## 개성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해

## 천태종 오는 11월 3일 법회 개최

천태종(총무원장 춘광)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이 공동으로 2005년 복원한 개성 영통사가 오는 10월 31일로 북

원 10주년을 맞는다. 이에 11월 3일 남북한 공동으로 영통사서 기념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10월 3일 개성 시내서 실무회담을 열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측은 1박2일간의 방북 일정을 천태종에 제안했으며, 방북단 규모도 영통사 복원 10주년에 담긴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천태종도 이 자리서 11월 16일 구인사에서 열리는 대각국사 914주기 열반다례제 초청장을 조선불교도연맹 측에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북청소년체육대회의 연내 개최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선불교도연맹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무회담에는 천태종서 총무원장

월도 스님, 사회부장 설해 스님, 복지국장 덕중 스님, 나누며하나되기 신면관 사무국장 장이, 조선불교도연맹에서는 차급 실무회담과 2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각국사 의천 스님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 한국 천태종을 개창했으며, 영통사는 의천 스님이 35년 간 주석하면서 수도한 사찰이다. 이런 뜻을 기려 천태종은 16세기 화제로 소실된 영통사에 2003년부터 2년 간 16회에 걸쳐 기와 46만여 장과 단청재료, 중장비, 조경용 모목, 창틀·유리 등 복원에 필요한 마감재를 육상 수송을 통해 지원해 1만8000여 평에 총 29개 전각을 복원한 대각 중창불사를 마무리 한 바 있다.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은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성 영통사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 열반일에 맞춰 다례제와 영통사 복원 기념법회를 공동으로 봉행해왔다.

김주일·신성민 기자

# “선학원 문제, 해결책 제시하겠다”

## 전국비구니회장 후보

## 자민 스님 공약 발표

## 비구니 총림 체제 구축 등

## 3대 운영기조 공약으로 제시



자민 스님

전국비구니회 1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자민 스님(사진, 기호1번)이 공약 사항으로 선학원 문제 해결을 내놨다.

자민 스님 후보추대위원회는 10월 2일 자민 스님의 출마의 변과 프로필 등을 배포했다. 자민 스님은 '출마의 변'을 통해 선학원 문제 해결 △비구니 총림체제 구축 △총제와 원로위원회 중심의 비구니회 운영이라는 3대 기조를 제시했다.

선학원 문제 해결에 대해 자민 스님은 "선학원 문제는 조계종과 선학원이 현재처럼 평행선을 달리기만해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양측의 대결구도 때문에 비구니 스님들이 오를수록 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소납이 전국비구니회장이 되면 가장 먼저 조계종-선학원 사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비구니 총림과 관련해서는 "우리 승단이 그동안 비구수 위주의 종단 운영이었기 때문에 비구 총림은 많은 반면, 비구니 총림은 하나도 없다"며 "종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몇 개의 비구니 총림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민 스님은 "이제 전국비구니회는 반목과 질시를 넘어 스스로의 권익을 신장하고, 각종 난제들을 해결해 비구니스님들의 실질적인 해결사 노릇을 해주어야 한다"며 "4년 동안 수고하신 현 집행부는 견여한 자세로 내재된 한계를 자인할 줄 알아야 하고, 비구니회 개혁을 위해 모임까지 결성한 '열린비구니모임'도 그 열정과 책신안을 보다 건설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보문종 "회장 선거 참여 않겠다" 하지만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문종이 10월 12일 열리는 제11대 전국비

구니회장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보문종은 10월 8일 배포한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 대한 입장'에서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선거인단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비구니회 제10대 임원진이 10월 5일 열린 제43차 임원회의에서 보문종 스님들에게 제11대 비구니회장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보문종에 선거인명부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보문종은 입장문에서 "지난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때부터 조계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종단을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인단에서 제외하고 선거를 치렀다"면서 "이러한 결과가 정기총회를 통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해야 하나 공론화되지 못하고, 단지 전국비구니회 임원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식적인 논의 없이는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선거인단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종도들은 10월 12일 전국비구니회 제11대 회장 선거에 그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비구니회장 선거 차주상보)

# 선학원과 법인법 갈등 100인 공사 의제되나

## 추진위, 대중공사 논의 제안

선학원정상화를위한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가 선학원 문제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는 10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선학원 문제의 대중공사 부의를 결의했다.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스님은 "일단 위원회 동참을 약속했다면 위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참하는 것이 위원들의 책무"라며 "가처분 신청에 이어 선학원 이사회의 정관변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신청할 예정이다. 분원장 스님들의 소송 동참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스님들은 적극적인 동참을 약속하며, 선학원 문제를 종도들과 공유하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주제로 부의할 것을 결의했다.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선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스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종단이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과 함께 선학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정관변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동참을 요청했다. 신성민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 대한불교원효종

## 축사

**종정 설제 정광**

원로위원장 **창해**      자문위원장 **금봉**  
 총무원장 **우석**      규정원장 **일륜**

원로위원 **혜초 수진 수경 혜봉 성호 법진**

총회부의장 **자안 보광**    총회의원 **법진 무상 자광 능관 법원 명운 현수 지광**

선거관리위원장 **석불**  
 선거 관리위원 **춘명 현수 정운 무공**

총학원장 **옥천**      법규원장 **무상**  
 문화원장 **효산**      복지원장 **법일**

부산교구원장 **석불**    대구교구원장 **서응**  
 전북교구원장 **경오**    전남교구원장 **마명**  
 제주교구원장 **법원**    강원교구원장 **성암**

총무원장 **혜진**      재무부장 **천수**  
 사회부장 **해인**      포교부장 **성우**  
 규정부장 **무중**      기획부장 **법민**  
 복지국장 **법선**      의전국장 **향적**

(사)대한선불교원효종 이사장 **청암**

총 회의장 **태일**  
총무부원장 **보원**

고시원장 **자광**      포교원장 **선운**  
 의전실장 **석해**

울산교구원장 **지광**    경남교구원장 **월함**  
 대전총남원장 **자성**    경북북부원장 **성죽**

교육부장 **도선**      문화부장 **대호**  
 복지부장 **원해**      의전부장 **무해**  
 사회국장 **보문**      규정국장 **남주**  
 사무국장 **도현**      조사국장 **최석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한국불교언론의 중심인  
 현대불교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의 기상으로 불법을 외호하며  
 불법홍포의 목표를 성대히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며  
 대한불교원효종 전 종도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    주소 :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TEL : 054)743-0700